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성령의 바람 / 마음이 상한 자를 / 내 갈급함	다같이
대표기도		최조나단
*성경봉독	삼상24:1~7	조인래
말씀	사울을 살려준 다윗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의 하나님	다같이
*봉헌	(특별찬양: 김하연)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사울을 살려준 다윗 (삼상24:1~7)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갈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찢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괴롭고 비참하지만 오히려 가장 빛나는 사건은 그가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존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 승계과정을 가장
순직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가올 메시아와 여호와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집착은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딸을 이용하여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유도했으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원수란 사실이 아닌 이유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파멸시키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원수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홀로 그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이 때야 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만약 다윗도 개인적 감정에만 충실했다면 부하와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사울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간 후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왕의 목숨을 보존해 드렸음을
알립니다. 사울은 감동하여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준 원수가 또 원수 짓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 십 광야로 출동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하 아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을 밤에 몰래 정탐하러 갑니다. 그 곳에 가 보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경계도 하지 않고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새는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같은 이유로 승낙하지 않습니다. 다윗 일행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여 나온 후, 멀리
떨어져 사울의 경호대장 아브넬을 불러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난 사울은 똑같이 다윗에게 감동하여 용서와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둘은 헤어집니다. 이것이 둘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것일까요? 그가 자신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삼상 24:12, 삼상 26:10) 성경은 원수를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즉, 사울은 사울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다윗은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죄를 직접
벌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힘에 밀려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궁수에게 활을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합니다. 이 날 사울의 세
아들도 모두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 소맨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마음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미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면서 그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를 기름 부으셨다가 그의 왕위를 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주목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광적인 모습을 가장 측근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삶은 비록 왕이었지만 결코 성공적이거나 행복한

말씀산책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아무리 부족한
왕이어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블레셋 민족에게 깃밋힌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용서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용서의 영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과
처리를 철저히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원수에 대해 가장 무서운 판결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만군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원수를 내 마음에서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 된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를
죽이고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처럼 두 번 크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의 열매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용서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후에 오실 메시아의 마음이었습디다. 이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여러분에게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는 누구인가요?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2. 그 원수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모든 처리 절차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신가요?
3. 2번도 힘든데 하나님은 왜 궁극적으로 용서의 자리까지 요구하시나요? 원수를 위함일까요, 나를 위함일까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2024년 청년부 수련회

- 기간 : 2024년 3월 8일~10일
- 장소 : Mo-Ranch (2229 FM 1340, Hunt, Texas 78024)
- 강사 : 손상원 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신약학 교수)
- 회비 : 140불 (조기등록할인 :110불, 학생조기등록: 100불, 조기등록: 2/11까지) ----->



수련회 신청 QR

이단세미나

- 2/9(금) 오후 7~9시, ZOOM 진행
- 강사 :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 2월 Arise 기도회는 이단 세미나로 대체합니다.

창립 51주년 부흥회

- 2월 23일(금) ~ 25일(주일)
- 강사: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 주제: 예수님, 기쁨, 제자들

전교인 신약 통독

- 이번주는 사도행전 3장~20장입니다.

1:1 청년 특별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교회
- 대상 :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 문의: 김상범 목사

2023년 결산 공동의회

- 2월 18일 주일 2부 예배후 분당

생명의 삶 2024년 2월호 판매

- 권당 5불

주일 3부 예배 신설 및 예배시간 변경

- 2024년 3월 3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신설되면서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 1부 : 8시, 2부:10시, 3부:12시
- EM : 10시, 다음세대 : 10시, 청년부 : 오후 2시

청년부 교정부 정리를 위한 사진 요청

- Option 1: 개인 사진을 이메일로 제출 : worship21c@gmail.com (최송석 집사)
- 메일 제목에 이름과 출생년도를 기재해주세요.
- Option 2: 사진촬영 : 예배 후 새가족팀에 요청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